페미니즘의 미러링은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전략인가?

사회학개론/ 외국의 현대문학 강의페어링

이진희 교수님 지도
연구자 이승희

연구목적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둘러싼 타인으로부터 어떻게 정의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구조 속에서 개개인은 구성원이라는 관계로 공존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언어는 표현의 수단으로서 사회 개개인의 다양성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였다.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한쪽 성에 대해서 개개인의 특징과 고유성을 특정 언어로 연결 지어 가둬 놓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왜곡적인 사고와 더불어 일반화를 하는 언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또 사용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언어는 사고와 연결되어 여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불러왔다.

오늘날 여성들은 이와 같은 언어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이후 여성들은 전략적인 언어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수많은 미디어들과 언론은 여성들의 언어 전략에 대해서 다루었고 젠더 담론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본 연구자는 현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논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러링의 정의

미러링(mirroring)은 거울처럼 반사해서 보여준다는 뜻이다. 미러링은 비도덕적인 원본을 의도적으로 모방함으로써 원본에 대한 조롱과 비판을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적 언어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여성들은 언어를 도구로 삼아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미러링을 실행하였다.

젠더 담론적 시각에서 국내의 미러링은 여성 혐오의 원본에 대응하는 언어와 기호를 선택하고, 새로운 언어를 생성하는 사용 방식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의 미러링은 여성 혐오에 대한 저항이라는 일정한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 또한 혐오 원본을 바탕으로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러링은 언어적 전략이 되었다. 이후 미러링의 범위는 확장이 되어 여성 혐오적인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사상과 행동까지 다루게 되었다.

페미니즘 담론의 시각에서 미러링을 살펴보면 여성 혐오적인 말이나 글, 사상·행태·행동을 등장인물이나 화자의 성별만 바꾸어 반대로 뒤집어 보여줌으로써 원본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모순적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역지사지의 개념과도 같다.

미러링의 효과

온라인 사회에서 규정된 여성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은 이용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상에 여성 혐오적 이분법적 체계가 적용이 되면서 온라인의 언어에 대해 여성들의 언어와 남성들의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후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에서 벗어난 언어를 여성이 사용을 하였을 때 남성으로 여겨지고 남성으로 불리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허용되는 발화의 범위가 같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적 체계 아래서 여성들이 온라인 사회에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거칠고 강인한 발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부정당한 것이다.
이후 혐오에 대한 미러링 전략이 시행되면서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며 거칠고 강인한 미러링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을 직접 타파함으로써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

차별적 혐오를 당해 온 여성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효과

혐오에 혐오로 맞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로 여겨질 수도 있다. 낯선 방식이라는 점과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는 방식일지라도 미러링 전략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사회면에서 알리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귀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차적 효과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사회에서 여성 혐오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된다면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고 온라인 사회에서 오히려 배제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의 여성들의 고통과 호소가 미러링 전략을 통해서 가장 크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의 효과는 전략 면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이후 남성 혐오와 마찬가지로 여성 혐오 또한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지닌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차별적 여성 혐오의 부당함을 전략의 주체와 함께 이외의 여성들이 각성하는 효과

미러링의 또 다른 수신자가 된 여성들은 광범위한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한 인지를 통해 여성 혐오는 왜곡된 기준 아래 인권 침해적인 행위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자신에 대한 혐오에서 벗어나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경험과 활동을 공유하였으며 모든 종류의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한 해결의 주체는 당사자라는 것을 상기시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천을 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변화된 여성의 사고가 주체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여성혐오의 양상

가부장제 젠더 체계 안에서 공고해진 여성 혐오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개념을 남성의 속성보다 결핍한 존재로 규정하며 여성을 타자로서의 제 2의 성으로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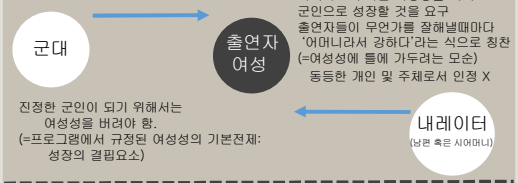
이후 가부장제 체계는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를 구성하며 여성의 속성을 제한하였다. 특히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대비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남성성은 정신적, 능동적, 적극적, 공적, 사회적, 독립적,특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그려졌다.
반면에 여성성은 감성적, 육체적, 수동적, 소극적, 사적,가정적, 의존적, 세속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규정하였다. 가부장제 사고에 따르면 남성성으로 규정되는 것은 이상적인 인간상이기에 남성성을 결핍한 여성은 열등한 성이고 인간으로서 자족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더불어 가부장제 체계 아래의 여성성은 출산이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과 결부되어 여성을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사에 묶어둠으로써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사적 영역에만 한정 시켰다. 이는 가부장제의 성역할 분업의 정당화로 이어졌다.
동시에 사적 영역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여성은 완전한 타자로만 여겨졌다. 이후 노동과 이익 추구를 원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계급론이 하나의 체계로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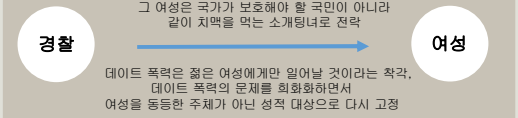
사적 영역 이외의 남성 중심의 노동력과 자본은 교환이 가능한 반면에 사적 영역의 여성의 노동은 자본과 교환이 되지 않는 하등한 일로 규정이 되었다. 이는 가부장제의 성적 위계질서가 자본주의와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고,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의 필요에 부응함을 의미한다.

즉, 성적위계 체계로서 남성 노동력의 우월성이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를 통제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자본의 생산을 해내지 못하고 가사를 돌보는 행위만을 하는 소비자로 전락하게 된다. 가부장제는 여성을 권력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디어에서의 여성 혐오적 맥락 (MBC 예능 진짜 사나이)



국가기관에서의 여성혐오(경찰)



"2016년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대구 경찰은 데이트 폭력은 가라 불타는 치맥 파티'라는 이벤트를 기획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이 20대 30대 여성들이 남성 경찰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소개팅을 하자는 내용 "

미러링의 구체적인 방식

□미러링 전략의 주체들은 언어 질서에 대해서 남성을 기본으로 하고 여성을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언어 질서를 발견을 하였다.

첫째, 남녀의 기본 설정(디폴트)을 전환한 미러링 방식이 있다.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의 기본 순서를 바꾸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선순위의 디폴트를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녀를 여남으로, 부모를 모부로 바꾸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들에게 관습적으로 붙이던 '여류~'라는 표현을 떼어내고 역으로 남성에게만 붙이는 미러링 방식이 있다.

현재의 관행은 '여의사','여성과학자','여류소설가','여군'등 대부분의 직업과 역할에 여성임을 환기시키는 접두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미러링의 언어 사용 방식에서는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접두사도 사용하지 않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을 나타내는 접두사를 반드시 붙여 남~라고 명시한다. 그 예가 '남의사','남성과학자', '남류 소설가' 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여성 혐오 담론에서 남녀의 성별을 바꾸어, 여성을 타자화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표현 대신 남성을 타자화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대체하는 것이다.

그 예가 김치녀를 김치남으로 맘충을 애비충으로 삼일한(여성을 삼일에 한번씩 때려야 한다)를 숨쉴한(남자는 숨쉴 때마다 때려야 한다)등의 신어를 개발을 하였다.

네 번째, 남성의 여성 혐오 발화 자체를 역으로 긍정적인 새로운 의미로 전환시키거나 혐오 표현을 전적으로 긍정해버리는 것이 포함이 된다.

그 예시가 김치녀를 신격화시켜 갓치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여성혐오의 정의

Misogyny(미소지니). 즉 한국어로 '여성 혐오'라 번역되는 이 개념은 영미권 페미니즘 이론 안에서 만들어졌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감정과 같은 단순 기호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왜곡된 사고 및 행위를 수반하는 표현 및 가치관들을 여성 혐오라고 정의내린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과 가치관들이 여성 혐오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을 통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일반화), 여성을 자기 집단에 기생하거나 자기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인식 시키는 것, 여성이 가부장제의 규범을 얼마나 어겼는지를 보여주는 방식, 여성의 역량을 저해시키는 방식, 여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적 대상화가 그 예시이다.

여성혐오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간주하지 않고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미러링의 등장배경

2005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00녀라는 호명을 통해 특정한 행위를 하는 여성을 비하 및 비난하기 위한 여성 혐오 표현이 만들어지고 확산이 되었다. 그 예가 된장녀와 김치녀이다.

이는 어떤 사람이 실수 또는 잘못을 했을 때 거기서 '여자'라는 성별을 집어내어 한국 여성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명백한 여성 혐오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제를 당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비정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위해 자기검열을 하며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이는 수많은 미디어들과 결합이 되면서 '00녀'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을 하였다. 그 후 메르스 사태와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은 여성 혐오라는 사회 맥락에 대해 자각을 하게 된다. 특히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생존은 체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으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온 사회가 기괴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여성들은 반 여성 혐오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경험 공유와 전략을 통해 여성 혐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옮겼다.

미러링의 한계

고유적인 특성에 대한 배척과 관련된 미러링의 한계

미러링 전략은 위계적 젠더 체계 아래에서 혐오의 대상 혹은 비난받는 특성에 대한 반전을 주는 방식이다. 위계적 젠더 체계 아래에서 여성은 감성적, 육체적, 수동적, 소극적, 사적, 가정적, 의존적, 세속적이라는 점에서 타자로 여겨지며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다.
이에 대해 미러링이 적용이 된다면 여성은 정신적, 능동적, 적극적, 공적,사회적, 독립적인 인물로 그려지게 되며 남성은 감성적, 육체적, 수동적, 소극적, 사적,가정적, 의존적, 세속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감성적이고 육체적이고 수동적인 것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러링 전략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영향력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미러링의 한계

대한민국에서 여성 혐오 원본에 대한 미러링은 여성 혐오와 동일한 효과를 산출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온라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여성 혐오적 표현들은 2005년부터 2010년대 초반에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었다. 광고에도 김치녀의 의미와 통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대량으로 그려지면서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의존하는,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여혐 표현을 미러링 한 언어들이 생산되었을 때 언론은 미러링을 한 주체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매스커뮤니케이션이 미러링 된 단어들을 컨텐츠로 다루는 경우는 없었다. 미러링의 횟수가 늘어나고 특정 단어들이 온라인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원본과 함께 미러링 된 단어들을 제한되었다. 여성 혐오적 시각이 여성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다르게 언어를 활용한 미러링 전략은 남성의 삶의 구조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혐오의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을 바탕으로 언어를 도구로서 활용한 미러링 전략은 실질적인 구조 변화를 이뤄내기에 있어 더 발전시켜나가야 할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

해결되지 않은 논의점들과 전략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점들과 관련된 미러링의 한계

페미니즘은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미러링의 목적은 무분별한 미러링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닌 여성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한 방식으로 평가되기에 학문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오늘날 미러링이 일정한 시간 동안 전략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미러링에 대해서 다양한 젠더, 다양한 연령층 간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러링 전략에 대한 한계라고 생각된다. 여성 혐오 원본을 어떻게 대응할지부터 해서 미러링의 방향성까지 이미 실행이 된 전략으로서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는 현실에 의해 미러링 전략에 대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여성들의 공식적인 연대가 보인 전략임에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